

흑인과 미국 인디언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부성(父性)을 표방한 백인우월주의- 『버지니아주에 관한 비망록』을 중심으로

황 규 철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I

미국 초기의 역사는 미국 인디언이 거주하던 땅 위에 아프리카 흑인들의 피땀어린 노동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적잖은 흑인들이 필설로는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일견 화려해 보이는 미국 역사의 베일에 가려진 미국 인디언과 흑인이란 존재를 망각하거나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미국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패러다임은 미국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변천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러한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인 순응론(Anglo conformity)은 미국의 소수 인종 및 민족이 주류인 백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하고 백인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색 인종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응론을 대표하는 토마스 제퍼슨(1743-1826)은 조지 파올러(George Fowl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모든 국가의 억압받는 자들의 안식처라고 말하면서도 영국계 미국인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이주민을 선호하는(Fisher, et al. 5에서 재인용) 이중성

을 보인다. 제퍼슨이 꿈꾼 바람직한 미국 사회는 영어를 사용하고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신봉하는 백인으로 구성된 사회였던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역사의 건국시조들(founding fathers) 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이 만든 묘비명에도 새겨 있듯이 “『독립 선언서』와 『종교 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법령』의 입안자이며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Jefferson”)로 잘 알려진 ‘몬티첼로(Monticello)의 현인’이다. 미국의 제 3대 대통령(1801-1809)을 지냈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버지니아 식민지 대표, 버지니아 주지사, 주 프랑스 공사, 워싱턴 대통령 재임 시 국무장관 등을 역임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정치 이력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 보여준 치적은 대단히 많은데 그 중 일부를 열거하면 당파주의를 초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합을 강조하였고, 자유방임 정책을 사용하여 농업과 상공업을 골고루 발전시켰으며, 북서부 농민들의 가장 큰 불평거리인 물품세를 철회하였고,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¹⁾의 광활한 토지를 매입하여 미국의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 있다.

그런데 미국 민주주의의 이념의 토착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제퍼슨마저도 그 기본 이념과 상치(相馳)되는 부분이 그의 저작물에서 발견된다. 그는 『독립 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235)고 주장하면서도 『버지니아주에 관한 비망록』(*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²⁾을 비롯한 그의 산문과 편지에서는 미국 인디언에 대해서 호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들의 학살을 주도하고, 흑인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가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제퍼슨이 일견 흑인 노예제도를 반대하

1) 오늘날의 루이지애나 주와는 다르며, 남북으로는 미시시피강 입구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동서로는 미시시피강에서 로키 산맥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2) Peterson, Merrill D. ed. *The Portable Jeff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Inc., 1975.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룬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에 대한 인용은 이 책에 따르며, 이후 제목은 『비망록』으로 줄이고 면수만 표기한다.

고 미국 인디언을 백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진보적 가치관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기저에는 오만과 독선의 산물인 백인 중심주의와 오도된 선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본고는 『버지니아주에 관한 비망록』(1785)을 중심으로 흑인과 미국 인디언에 대한 제퍼슨의 부성을 표방한 백인우월주의적 가치관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순응론을 대표하는 제퍼슨의 통찰력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맹점을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겠다.

II

미국에서 세계 근대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노예제도가 1619년 제임스타운에 20명의 흑인이 끌려온 때부터 1865년에 철폐되기까지 2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역사 초기의 백인 연기 계약 하인(白人 年期 契約 下人)들은 계약된 기한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었던 반면 흑인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노예신분이 세습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이때부터 흑인은 인간이 아닌 부유한 백인들의 움직이는 자산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많은 흑인 남성들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분리된 채 생활하였으며 상당수의 흑인 여성들은 백인 주인에 의해 성적인 노리갯감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그 후 1865년 남북전쟁의 형세가 북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자 의회는 노예제도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적어도 법률상으로 미국의 노예제도는 공식적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흑백간의 갈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있으며 미국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991년에 일어난 LA 흑인 폭동은 백인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뿌리 깊은 좌절감과 분노가 다른 소수민족에게로 표출된 사건이다. 이 사건

은 미국 역사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노예 제도가 묵인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대법원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아온 현실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분노를 표출한 사건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그 수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Schaefer 186).

제퍼슨이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과 함께 미국의 ‘이성의 시대’(Age of Reason)를 대표하는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성의 시대의 특징으로는 감각을 통해 나타난 세계의 실재에 대한 믿음, 신비롭거나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불신, 교육과 인본주의를 통한 진보에 대한 신뢰, 이성애의 호소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 등이 있다. 제퍼슨은 이성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답게 노예해방을 위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적도 있고(Koch 9), 노예 무역이 흑인의 생명과 자유를 향유할 신성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국의 조지 3세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노예 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경우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사실이다.

제퍼슨은 『비망록』에서 백인과 구별되는 흑인의 신체적, 정신적 열등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 태도로 지적한다. 먼저 그는 신체적인 면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체형이 덜 우아하고 체모가 적다고 설명하고, 백인과 구별되는 가장 큰 외형적 차이가 피부의 색깔에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제퍼슨은 흑인과 백인간의 차이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흑인의 검은 피부는 모든 감정을 가리는 검은 베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단조로움’(187)을 준다고 말한다. 또한 흑인들이 백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오랑우탕이 흑인 여성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이는 자신의 종족을 우등한 종으로 번식시키려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말함(187)으로써 흑인에 대한 백인의 우월성을 암시한다.

흑인의 정신적인 면을 고찰함에 있어서 제퍼슨은 기억력에 있어서 흑인이 백인과 같지만 상상력에 있어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무디고 감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칙적이고,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훨씬 열등하다고 단정짓는다(188). 게다가 흑인은 사전에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해 보이며, 여성에게 열렬하게 나타내는 감정도 사랑이라기보다 욕정의 성격이 강하고, 사유(思惟)보다 감각에 치우치는 존재방식을 갖고 있다고 기술한다(187). 또한 제퍼슨은 흑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대화수준, 교육, 활동영역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지만, 흑인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백인과의 수준 차이를 좁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인들의 게으름을 은근히 비판한다. 심지어 그는 지성을 갖춘 백인과의 접촉이 없는 인디언에게서조차 뛰어난 조각품들이 발견되고 그들의 웅변술이 이성(理性)과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고 숭고한 느낌을 불러일으킴을 상기시킴으로써 흑인이 인디언보다도 열등한 존재임을 부각시킨다(188).

흑인의 신체적, 정신적 열등함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제퍼슨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제도가 백인에게는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한편 흑인에게는 백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제퍼슨은 흑인이 미국 시민으로 격상될 경우 흑인과 백인들이 파당을 지어 어느 한 쪽이 절멸해야 끝날 싸움을 할 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186).

그런데 제퍼슨이 흑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유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흑인의 음악적 재능과 감각이다(189). 하지만 흑인의 시에는 비참한 여건에서 우러나옴직한 애절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흑인 문인들-예를 들면, 윌리스 휘틀리(Phyllis Wheatley)나 이그나티우스 산초(Ignatius Sancho)-의 작품을 백인들의 작품보다 수준이 훨씬 밑도는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흑인의 열등함이 삶의 조건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 유전 형질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퍼슨이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퍼슨 생존 당시 미국의 흑인 노예를 고대 로마의 백인 노예와 비교하는 대목이다.

제퍼슨에 의하면 로마의 노예는 미국 흑인 노예보다 더 열악한 환경³⁾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가, 문인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고대 로마의 노예들보다 흑인 노예가 더 열등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고대 로마의 노예보다 흑인 노예의 열등함을 제퍼슨이 강조하는 이유는 흑인 노예가 자유로와 질 경우 백인과의 혼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확신에 찬 어조로 흑인 노예의 열등함을 주장해왔던 제퍼슨이 『비망록』의 후반부에서 ‘앞으로 보다 심오한 관찰을 통해 진실임을 입증해야할 추측(conjecture)’(191)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으로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J. Boorstin)은 과학에 입각한 방법론을 회생시켜 가면서까지 평등주의적인 윤리적 믿음을 지키려는 제퍼슨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한다(95). 제퍼슨은 흑인의 도벽이 선천적인 도덕성의 타락이 아닌 노예주에게 재산권을 모두 몰수당한 상황에 기인한다고 변호한다. 흑인의 이런 도벽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이 아닌 양심에 기초한 법이 존재해야 하고 재산권 불가침권을 흑인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리하여 제퍼슨은 최종적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흑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하다는 사실이 단지 ‘하나의 의혹’(a suspicion)임을 제기”(192)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을 유효하는 신중함을 보인다. 제퍼슨의 이와 같은 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3) 예컨대, 고대 로마의 노예 주들이 노예에게 자식이 생기면 부양비가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 남녀 노예를 격리시켜 수용하였고, 불치병에 걸린 노예들을 치료해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노예주가 살해당할 경우 그의 노예들을 모두 사형을 시켰던 사실(190-191)을 가리킨다.

는 미구(未久)에 백인과 흑인의 동등함을 밝혀줄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그가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Boorstin 96). 또한 이 대목은 앞에서 제퍼슨이 흑인의 열등함에 대해 나름대로 도출해 낸 결론에 편견과 독단이 개재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므로 『비망록』에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계몽주의자로서의 제퍼슨이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믿음을 고수하려는 이상주의자로서의 제퍼슨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그렇다면 제퍼슨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215) 때문이다. 제퍼슨은 신이 공정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노예제도가 앞으로 계속 존속될 경우 분노한 신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운명의 수레바퀴를 뒤바꿔 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한다. 두 번째 이유는 흑인들의 수와 그들이 품고 있는 적개심과 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제퍼슨은 어릴 적부터 미국 흑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던 버지니아주에서 자라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흑인들이 표출했던 분노와 증오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였다(Miller 64). 그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남은 여생을 보냈던 몬티첼로에는 흑인의 수가 백인의 수를 압도했다. 세 번째 이유는 노예제도가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노예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흑인은 인간 이하의 복종을 강요당함으로써 그의 내면에 있던 애국심이 파괴되는 한편 백인은 흑인에게 압제를 끊임없이 계속 가함으로써 도덕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흑인에게 모든 일을 떠맡김으로써 근면성이 상실될 소지가 크다”(215)는 우려를 표명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퍼슨이 흑인을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흑인 노예 제도와 관련하여 신의 분노를 야기하지도 않고, 백인이 흑인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흑인이 백인에게 어떠한 악영향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퍼슨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일차적 해답으로 제퍼슨은 ‘흑인의 몰살을 통해서가 아닌 노예주의 허가를 통한 모든 노예의 해방’(215)을 제시한다. 하지만 노예가 해방이 된다고 해서 그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백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퍼슨의 의도가 결코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퍼슨은 설령 흑인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백인과의 혼혈을 절대로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백인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노예 제도 철폐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제퍼슨의 최종 해결 방안은 흑인들을 “아프리카 해안으로 이주시켜 그곳에 흑인 거주지를 설정하고 흑인 이주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생길 때까지 미국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Letters, 239-240)는 것이다.

III

미국 인디언들은 기원전 4만년 전부터 2만 5천년에 걸쳐서 미국에 최초로 이주해 온 종족이다. 이들의 고향은 원래 몽고의 고비사막이며 빙하기에 베링 해협과 알류산 열도를 경유해서 미국에 이주하여 따뜻한 기후를 찾아 서서히 남하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대에는 고도의 원주민 문화인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이 존재했으나 16세기 이후에 일어난 유럽인들의 침입은 인디언들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문화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때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질병이 미국 인디언 인구 감소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에 대한 인디언들의 면역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디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을 오로지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에 기인한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유럽인들이 저지른 대학살도 인디언들의 절멸에 역동적으로 작용한 힘

이였기 때문이다(Stannard xii). 리오 그란데 이북에 거주하는 미국 인디언들의 수가 1500년에는 약 700만 명에 달했으나 1800년 무렵엔 약 60만 명으로, 1900년에는 약 이십 오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Schaefer 150)은 미국 인디언에 대한 백인의 잔혹성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짐작케 해준다.

한편 북미의 경우 인디언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되는 야만인이자 그들이 지상의 과제로 여겼던 ‘언덕 위의 도성’(city upon a hill) 건설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런 과정에서 백인과 인디언간에는 피로 얼룩진 전쟁이 불가피했고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서로 영토를 분할하였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땅이 백인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이러한 불평등한 협상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마침내 인디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포기하고 계속 서쪽으로 밀려나든지 아니면 백인과의 계약을 맺어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든지 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오늘날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언들도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인권 보호나 자치권 보장이니 하는 말로 인디언들을 기만하지만 이는 대외선전용이거나 주정부가 인디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인디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술책에 다름 아니다(Stannard 257). 그나마 인디언 보호 구역도 언제 어떤 구실로 몰수당해 다른 척박한 곳으로 쫓겨나갈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제퍼슨의 『비망록』에서 인디언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기후가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유럽종보다 작게 만들뿐만 아니라 원주민이건 이주해 온 사람이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유럽인보다 작게 만든다는 드 뷔퐁 백작(Count de Buffon)의 가정을 부인하는 데에서 출발한다(101). 제퍼슨은 미국 원주민이 신체적으로 약하고, 성기가 작으며, 털이나 수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갖

고 있지도 않다는 드 뷔퐁 백작의 주장이 인디언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이라고 통박한다. 제퍼슨은 남미의 인디언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북미 인디언에 한정시켜 자신의 지식과 인디언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전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한 인디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인디언 남성이 인디언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의 열렬함은 백인 남성이 백인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무능력하지 않다; 인디언은 용감하고 적을 전술로 괴멸시킨다; 인디언이 포로로 잡혔을 때에는 항복하기보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고문을 당할 때에는 지독할 정도로 잘 견디고 죽음을 맞을 때에는 당당하고 침착하다; 인디언은 자식에 대해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인디언 남성들간에는 끈끈한 우정이 존재한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강제력보다 설득이 중시되므로 그 수단으로 이용되는 웅변이나 연설 또한 중요시된다(94-96).

이외에도 제퍼슨은 인디언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더 나열하면서 그 특징이나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한다. 예컨대, 인디언 여성이 부당하게도 굶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명인들과 달리 야만인들에게는 힘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며, 만일 백인이야만인이라면 백인 여성들도 인디언 여성들과 똑같이 굶은 일을 도맡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97)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리고 인디언이 백인보다 자녀수가 적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인디언 여성이 남자들의 위험한 활동에 자주 참여해야 하고 일년 중 식량부족으로 고생하는 때가 적잖은 탓에 생식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97). 또한 인디언이 머리를 제외하고는 털이 없는 이유가 인디언들이 털이 많이 난 사람을 돼지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어서 털이 나면 곧바로 뽑아 버리기 때문인데, 만일 인디언들이 털을 뽑지 않고 내버려두면 백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98).

이와 같이 제퍼슨은 인디언들을 대단히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백인과 다른 특징들을 유전형질이 아닌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인디언의 소질이나 정신적인 힘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더욱더 많은 사실을 수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특정한 재능만을 요구하는 상황 및 환경에 대한 많은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마 인디언이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호모 사피엔스 유로피우스(Homo sapiens Europæus)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98-99)이라고 말한다. 제퍼슨에 의하면 인디언은 흑인과는 달리 백인과 동등한 존재인 근거가 백인들이 오기 여러 세기 전에 인디언이 이미 미국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고, (중략) 신의 의도를 판독해 보건대 신세계에 열등한 인간을 살게끔 운명 지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주민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Miller 65). 이런 이유로 제퍼슨은 미국의 제도가 미국 시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인디언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중략) 그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궁극적인 핵심이 우리 거주지와 그들 거주지가 함께 만나 한 민족으로 융화되는데 있다고 말한다(Drinnon 82-83). 따라서 제퍼슨은 백인과 비교해 볼 때 인디언의 열등함을 천성이 아닌 환경이나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열등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다른 증거들이 머지않아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직 시절 제퍼슨은 백악관으로 인디언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내 자식들아!’라고 불렀다고 한다(Drinnon 88). 그가 미국 인디언들을 자식들처럼 여기며 한 충고의 이면에는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곧 자식인 인디언들이 아버지인 제퍼슨의 말을 안들을 경우 아버지는 매질 즉, 폭력이나 탄압을 해서라도 그들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할 것이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제퍼슨은 인디언들이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영원한 자식들로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게다가 제퍼슨은 인디언들을 백인과 동등한 존재가 아닌 위험한 늑대나 야수에 비유하는 백인우월주의적 사고를 드러낸다

(Stannard 240). 제퍼슨이 인디언들을 인간이하로 폄훼한 이유는 백인들이 정착할 토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디언들이 자신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이다.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1807년에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이 토지를 확장하는데 저항하는 인디언은 누구든지 손도끼 맞을 봐야 할 것이다. (중략) 만일 우리가 어떤 인디언 부족에게 손도끼를 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 부족이 절멸하거나 미시시피강 너머 서쪽으로 쫓겨날 때까지 손도끼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중략) 전쟁이 터지면, 그들은 우리들 중의 몇 명만을 죽이겠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를 전멸시켜 버릴 것.”(Stannard 120)이라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상적인 백인 국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퍼슨이 미시시피 강 동부에 사는 인디언들로부터 그들이 거주하던 토지와 미시시피 서부의 토지를 교환하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무위로 끝났음(U. S.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주하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백인들의 거주지로 변경하는 한편 이들을 서부로 내몬 역사적 사실(“Jefferson”)은 그가 인디언과 백인이 융화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IV

자신의 대농장에서 일하던 200명 안팎의 흑인 노예의 주인이면서도 흑인 노예제의 폐지를 주장한 제퍼슨은 이율배반적인 미국의 초기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1783년에는 버지니아인들에게 1800년 이후에 출생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자고 설득하고, 1784년에는 북서 법령(Northwest Ordinance)에서 이 법령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Gaustad 75) 적도 있는 제퍼슨은 『비망록』에서도 노예제가 폐지될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는 도덕적

으로 타락한 제도이며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제퍼슨이 적어도 『비망록』이 출판된 시기까지 만큼은 『독립 선언서』에서 피력한 이상주의적 소신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가 파리 공사로 근무하던 시기(1784~1789) 중 중반에서 후반부에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창했던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조셉 엘리스(Joseph J. Ellis)는 제퍼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원인으로 『비망록』의 출판을 계기로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 휘말리기를 싫어하는 제퍼슨의 기질, 노예가 해방될 이후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제시 부족, 자신의 재정적 상태가 노예의 가치와 노동력에 의존한다는 점증하는 의식을 지적한다(146-148).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제퍼슨이 노예 제도가 그릇된 것이므로 노예들을 격리하여 보다 영속적이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수용한다는 분리주의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흑인들이 거주하기에 만족할만한 거주 지역이 발견될 때까지 노예들을 보살피는 관리인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태도가 흑인에 대한 제퍼슨의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퍼슨의 전기적 사실 가운데에서 전술한 흑인에 대한 제퍼슨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은 그가 파리 공사로 재직하던 시절 샬리 헤밍즈(Sally Hemings)라는 흑인 노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40대 중반의 홀아비로 파리에서 유부녀인 마리아 코스웨이(Maria Cosway)에게 연정을 느꼈으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간통죄를 저지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제퍼슨은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그와 가까이 있던 샬리 헤밍즈에게로 관심을 돌린다. 샬리 헤밍즈는 제퍼슨의 장인인 존 웨일즈(John Wayles)와 그의 흑인 노예인 엘리자베스 헤밍즈(Elizabeth Hemings) 사이에 태어난 흑백 혼혈이다. 즉 샬리 헤밍즈와 제퍼슨의 사별한 부인인 마사 제퍼슨

(Martha Jefferson)과는 나이 차가 많은 이복 자매인 셈이다. 그런데 샬리 헤밍즈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예컨대, 메릴 피터슨(Merill D. Peterson)은 그가 저술한 제퍼슨 전기에서 샬리가 낳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제퍼슨의 조카인 피터 카(Peter Carr)라고 추정하면서 제퍼슨이 죽을 때까지 이를 함구했던 이유가 ‘헤밍즈가의 진실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욕망’(707)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폰 브로디(Fawn M. Brodie)는 메릴 피터슨과 견해를 달리하면서 보다 설득력 있게 샬리의 자식들이 제퍼슨의 자식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샬리의 셋째 아들인 매디슨(Madison)이 쓴 편지를 제시한다(228에서 재인용). 또한 브로디는 제퍼슨이 잠시 파리를 떠나 1788년 3월과 4월에 걸쳐 7주 동안 프랑스 동부, 독일, 네델란드를 여행하면서 적은 일기장 가운데에서 시골 경치를 묘사할 때 ‘황갈색’을 의미하는 ‘mulatto’란 단어를 이례적으로 여덟 번이나 사용한 점이 샬리에 대한 제퍼슨의 각별한 관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한다(229). 브로디는 제퍼슨이 파리에 있는 샬리를 위해 적잖은 금전을 소비했다는 점 이외에도 제퍼슨이 43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에서 전술한 7주 동안 제퍼슨과 샬리 사이에 오간 편지에 관한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점을 제퍼슨이 샬리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또 다른 방증으로 제시한다(233-234). 이렇듯이 제퍼슨은 공적으로는 노예제도의 폐해를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도 사적으로는 자신의 노예들에 대한 소유욕과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이중성을 보인다.⁴⁾

한편 미국 인디언에 대해서 제퍼슨은 자신이 기초한 『독립 선언서』에서 ‘무자비한’(merciless) 혹은 ‘야만인들’(savages)이란 표현을 거침

4) 이와 관련하여 2000년 6월 국내에 출시된 『대통령의 연인들』(*Jefferson in Paris*)이란 제목의 비디오는 제퍼슨이 파리 공사로 재직하던 시절 마리아 코스웨이 부인과의 이 루지 못한 사랑과 샬리 헤밍즈와의 내밀한 성관계와 이로 인한 그녀의 임신을 실화를 바탕으로 형상화한다.

없이 사용하고, “일단 전쟁을 벌였다하면 나이, 성별, 상황을 불문하고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교전 법칙”(238)이라고 비난한다. 그 후 그는 『비망록』에서 미국의 원주민에 대해서 흑인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표명한다. 제퍼슨은 미국 인디언과 백인간의 사회적 융합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혼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Sheehan 174). 그가 미국 인디언과 백인간의 혼혈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이유는 미국 인디언이 미국 백인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비망록』을 집필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독립 선언서』를 기초하던 시기부터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미국 인디언에 대한 제퍼슨의 기본 입장은 그들을 교화시키든지 아니면 절멸시키는 것이었다. 제퍼슨은 미국 인디언이 홀로 서기를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백인에게 있다는 소위 ‘백인의 책무’(White Man’s Burden)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퍼슨은 미국 인디언이 운명을 다한 종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의 절멸의 도구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의혹을 품지 않았다 (Ellis 201). 제퍼슨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인디언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백인 사회에 동화하는 방법밖에 별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제퍼슨은 미국 인디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들이 백인 이주민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장애물이 될 경우 가차없이 추방하거나 절멸시켜야 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퍼슨은 미국 역사 초기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흑인과 미국 인디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오만한 백인우월주의와 비뚤어진 선민 의식을 드러낸다. 결국 제퍼슨은 미국 역사의 초기에 미국이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기틀을 확립했으나 미래의 미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공존하는 다원적 사회가 되리라는 혜안을 갖지는 못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orstin, Daniel J. *The Lost World of Thomas Jefferson*. Boston: Beacon Press, 1948.
- Brodie, Fawn M. *Thomas Jefferson: An Intimate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4.
- Drinnon, Richard. *Facing West: The Metaphysics of Indian-hat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0.
- Ellis, Joseph J. *American Sphinx: The Character of Thomas Jefferson*. New York: Alfred A. Knopf, 1996.
- Fischer, William C, et al. *Identity, Community and Pluralism in American Lif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 Gaustad, Edwin S. *Sworn on the Altar of God: A Religious Biography of Thomas Jeffers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 Jefferson, Thomas. *Letters of Thomas Jefferson*. Ed. Frank Irwin. New Hampshire: The Sanbornton Bridge Press, 1975.
- _____,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The Portable Jefferson*. Ed. Merrill D. Pet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Inc., 1975. 92-217.
- _____,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Portable Jefferson*. Ed. Merrill D. Pet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Inc., 1975. 235-241.
- "Jefferson, Thomas." *Microsoft® Encarta® Online Encyclopedia 2001*. <<http://encarta.msn.com>>.
- Koch, Adrienne. "Introduction." *Jefferson-Great Lives Observed*. Ed.

- Adrienne Koch.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1, 1-10.
- Miller, John Chester. *The Wolf By the Ears: Thomas Jefferson and Slavery*.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 Peterson, Merrill D. *Thomas Jefferson and the New Nation: A Biography*. 2nd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8.
- Schaefer, Richard. *Racial and Ethnic Groups*. 5th ed. New 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3.
- Sheehan, Bernard W. *Seeds of Extinction: Jeffersonian Philanthropy and the American Indi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3.
- Stannard, David E. *American Holocaust: The Conquest of the New Worl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2.
- U. S. Commission on Human Rights. "A Historical Context for Evaluation." *Native Americans and Public Policy*. Eds. Fremont J. Lyden and Lyman H. Legters.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92, 13-32.

<Abstract>**Thomas Jefferson's view of paternalistic
White-superiority on blacks and
American Indians**

Hwang, Kyucheol

Thomas Jefferson, well-known for an author of the Declaration of American Independence and the thi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one of the most gifted men ever to assume the tasks of democratic statesmanship. Nevertheless, he showed an ambiguous position on the slavery and incompatible values on the American Indians in his essays and letter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entral dilemma of Jefferson's overall cast of mind on the blacks and the American Indians centering 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He exposed his intellectual awkwardness in attempting to straddle what was in fact a moral chasm between what he knew to be right and what he could not do without.

In his *Notes*, Jefferson shows his opinion that the blacks are physically and mentally inferior to the whites and even to the Indians. Though he is strongly against the slavery, he reveals his extreme aversion to the incorporation of the blacks into the States because the deep rooted prejudices of the whites and recollections of the injuries sustained by the blacks will divide them into parties and produce convulsions which will probably never end but in the extermination of the one or the other race. Thus Jefferson's final

solution on the problems caused by the blacks is that they should be cared for as foster children until more permanent and geographically distant accommodations could be found.

As for the American Indians, Jefferson regards intermarriage between the Indians and the whites a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divisions and suspicions in his *Notes*. However, it was during Jefferson's presidency that the basic decisions were made that required the deportation of massive segments of the Indian population to land west of the Mississippi. There could be no doubt that the Indians must face the stark choice of civilization or destruction. As he had no confidence in the Indians' capacity to make their own way, Jefferson though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future lay with the white man. He conveyed this message through the contrived form of linguistic primitivism to infantilize the Indians.

Consequently, Jefferson's final solution to the slavery was to separate the blacks from the whites and Indians' final option forced by him was assimilation or extermination. But he had no place in his imagination for an American society of diverse cultures in which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coexisted with the whites while retaining their own racial or ethnic values. As a representative of Anglo conformity, Jefferson exposes sexism and racism by showing paternalistic view on the blacks and American Indians.